

# 몽골인의 남자 관모에 관한 연구\*

- 「集史」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ongolian Male Headgear\*

- focused on *Jip-Sah*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미자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Mi-Ja Kim

###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en types of male headgear - *Kwonwoonkwan*, crown-like headgear, hats with a square flap, hats with feathers, crowns with plumes, *Ballip*, hats with flat crowns, *Somo*, turban, and fur hats - were described in *Jip-Sah*, which was published in the 14th century. Mongolian people used summer headgear, winter hats, and crown ornaments, which had been used until the Ch'ing dynasty of China. From the late 12th century to 1304, the headgear styles remained the same, suggesting that the Mongolian people kept their tradition. *Kwonwoonkwan*, crown-like headgear, and *Somo*, presented in *Jip-Sah*, were also described in U. Yadamshuren's album, a pictorial depiction of the 20th century Mongolian headgear.

**주제어(Key Words):** 후첨모(hats with a square flap), 왕관형모(crown-like headgear), 몽고 모자(Mongolian headgear), 소모(Somo)

### I. 서론

본 연구는 「집사」에 나타난 몽골의 관모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집사」의 삽화(14C 초기)에 나타난 몽골인의 관모양식과 1967년에 U. Yadamshuren이 그린 20C 몽골모자의 양식을 비교하여 전통성을 찾는 것이다.

「집사」는 가잔칸(1300년)의 명에 따라 라시드 앳딘(Rashid Addin, 1247?-1318 페르시아인, 학자, 재상)이 편찬한 징기스칸의 역사(몽골제국사)와 제8대 올자이칸(1305년에 즉위)의 명에 따라 징기스칸의 역사서에 유라시아 제민족의 역사를 합한(1310년 완성) 3권의 세계사이다. 「집사」의

Corresponding Author: Mi-Ja Kim,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Women's University, 126 Gongreung-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R.O.K.) Tel: 82-2-970-5623 Fax: 82-2-970-5979 E-mail: kmj@swu.ac.kr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중국 화가와 몽골 화가를 초청해 갔다고 하며 삽화가 많아 몽골 관모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집사」에 묘사된 다양한 몽골 관모는 원대(元代) 초상화, 벽화, 도용에 표현된 관모와 실물과도 같았다. 이것은 몽골과 중국 화가가 그린 삽화가 그 시대의 복식과 관모를 정확하게 그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U. Yadamsuren이 그린 47종의 모자가 Union of Mongolia Artists national Costumes of M. P. R. (Mongolian People's Republic)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album은 U. Yadamsuren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수집한 수많은 형태의 의상과 자료를 그린 것 중 일부이다. U. Yadamsuren은 몽고의 전통예술가로 유년시절부터 민속예술과 민속의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지방을 체류하면서 수많은 의상과 자료를 수집하였고 많은 그림을 제작하였다. 또한 그 당시의 의상을 매우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몽고에서 복식의 제작은 바로 예술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고, U. Yadamsuren은 민속학자로서 뛰어난 인물이라고 이 album의 서문에서 L. Sonomtsern이 말했으므로 이 album에 나타난 몽골 관모가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집사」와 U. Yadamsuren이 그린 앨범이 14세기와 현대 몽골 관모의 형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몽골 관모의 전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하여 이 두 문헌을 주된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집사」의 사본이 세계 각지의 圖書館, 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는 데 본인이 사용한 자료는 파리 박물관에 소장중인 14세기 필사본인 집사의 삽화(miniature: 세밀화)에 나타난 몽골의 관모이다. 분석에 사용된 「집사」의 삽화는 몽골제국(1970), 歷史讀本 World(1991, 3월호), 원색도설대세계사1(1982), 세계문화사 III(1964), 週刊朝日百科(1989, 51, 53)에서 참고한 21점의 삽화이다.

연구의 시대는 징기스칸 시대와 원시대가 주된 범위이다.

연구 방법은 「집사」에 나타난 관모의 형태와 1967년에 민속학자인 U. Yadamsuren이 그린 앨범에 나타난 관모의 형태를 양식에 따라 분류하고, 몽골 관모의 특징을 고찰하여 그 유사성을 찾았다.

논문에서 사용된 '관모'의 명칭은 중국 학자들이 사용한 관모용어를 따랐으나 없을 경우 임의로 붙였다.

## II. 본론

「집사」의 미니어처에 보이는 많은 종류의 관모와 元의 기록을 살핀 후 권운관, 왕관형관, 후첨관(後檐冠), 치미(雉尾)깃털모, 조우관, 발립, 모정이 평편한笠형, 소모형, 터번, 털

모자의 순으로 고찰한다.

元史 輿服志의 기록에 의하면 황제의 모자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모두 진귀한 재료로 만들었으며 귀한 보석장식을 하며 의복과 조화되게 계절에 맞추어 마음대로 바꿔 사용했다. 황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자를 좋아하는 신하에게 주었다.

천자(天子)의 지손동복(只孫冬服)은 11등(等)이 있는데, 금금난모(金錦暖帽), 칠보중정관(七寶重頂冠), 홍금답자난모(紅金答子暖帽), 백금답자난모(白金答子暖帽), 은서난모(銀鼠暖帽) 등이 있다.

하복(夏服) 15등(等)에는 보정금봉발립(寶頂金鳳笠笠), 주자권운관(珠子卷雲冠), 주연변발립(珠緣邊笠笠), 백등보패모(白藤寶貝帽), 금봉정립(金鳳頂笠), 금봉정칠사관(金鳳頂漆紗冠), 황아고특보패대후첨모(黃雅庫特寶貝帶後簷帽), 칠보칠사대후첨모(七寶漆紗帶後簷帽)가 있으며 帽 위에 보석을 상감하여 달았는데 보석 종류도 많았다. 홍색 종류는 4종류, 녹색 3종류, 여러 색의 아골(鴉鵲), 즉, 아고특(鴉庫特) 7종류, 모청(貓睛 cats eye 종류) 2종류, 전자(甸子) 3조유 등 각각 여러 이름이 있다.

황제가 가까운 신하에게 준 기록이 虞集의 「道園學古錄」 권 23에 있는데 관모의 종류만 쓰면 주모(珠帽), 옥정립(玉頂笠), 칠보입(七寶笠) 등이 있다(沈從文, 1981: 389).

### 1) 권운관(卷雲冠)

권운관은 집사의 미니어처 13점에 징기스칸, 오고타이칸, 가잔칸, 바투칸, 몽케칸과 왕자 등 31인이 썼는데, 그림의 표현이 모정이 없는 것 같이(도 1) 되어있고, 징기스칸의 권운관(도 2)만 모정에 보석이 박혀있다.

권운관의 형태는 모(帽)로 머리를 보이지 않게 감싸고, 모에 장식된 대륜(臺輪)형을 덧댄 것이다. 장식된 대륜은 십자군을 통솔하는 루이9세의 왕관(도 3)과 비슷하다.

징기스칸의 권운관은 모정에 보석이 박힌 것 같이 표현되어 있어 모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미니어처가 있다. 다프리즈파의 미니어처에 나타난 일칸국 시대의 권운관은 둥근 모가 위로 볼록 나왔고, 모정에는 보석이 달려있고(몽골제국, 1970: 51) 프하라의 사원에서 연설하는 징기스칸의 권운관도 둥근 모가 확실히 보이고 모정에 보석이 있다. 이란의 시인 휘르도시의 서사시「왕서」의 미니어처 중 권운관(The Legacy of Genghis Khan, 2002: 48, 138)은 둥근 모가 위로 솟았고 모정에는 보석이 박혀있다.

몽골 Bogdokhan 궁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권운관과 유사한 유물(도 4)을 왕관이라 했으며 모정에 금장식이 달려 있다. 「元史」에 하복 15등 중에 주자권운관이라는 명칭이 있고 주석보(1984: 362)가 권운관이라고 하였으므로 본인도 권운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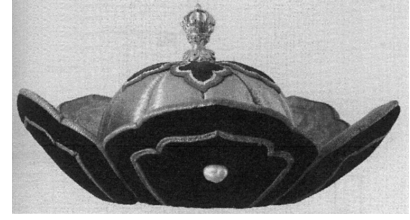
〈도 1〉  
가잔칸의 권운관(조일백과, 세계의 역사 53)  
c-350



〈도 2〉  
징기스칸의 권운관(세계  
의 역사2, p.36)



〈도 3〉  
루이 9세의 왕관(조일백과, 세계의 역사51, A-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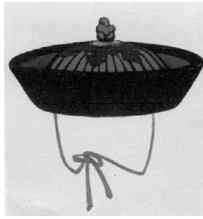
〈도 4〉  
왕관(몽골Bogdo Khan 궁전 박물관 소장,  
몽골 미술 공예, p.71)



〈도 5〉  
차카타이칸의 왕관형모  
(몽골제국, p.134)



〈도 6〉  
옆이트인 왕관형모  
(조일백과, 세계의  
역사 A-344)



〈도 7〉  
20C 왕관형모  
(U. Yadamsuren Album)



〈도 8〉  
후첨모(주석보, 중국  
고대복식사, p.367)



〈도 9〉  
원세조 金答子난모  
(황능복, 조연연 중국역  
대복식예술, p.302)

## 2) 왕관형모

왕관형모(도 5, 6)의 형태는 모와 대륜으로 구성된 왕과 왕자의 관인 권운관과 비슷하고 왕이 쓰는 관이므로 명칭을 왕관형모라고 임의로 붙였다. 왕관형모는 黃能馥, 陳娟娟(1999: 307)은 챙을 접어올린 난모(折檐暖帽)라고 하였으나 몽골 모자 중 챙을 접어올린 모의 종류가 많으므로 절첨난모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다른 난모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왕관형모라고 명칭을 붙였다.

왕관형모는 삼파 7점 중에서 16명이 썼으며 사용자가 많은 편이다. 왕관형모의 대륜은 일자형이며 모의 모습이 보이는데 모두 돛형이다. 일자형의 대륜의 색은 모두 청색이며 밑부분에 금색선을 둘렀거나 연속하여 금색 U자를 장식했거나(도 5), 아무 장식이 없는 것이 있다. 또한 〈도 6〉과 같이 대륜의 위쪽을 반쯤 벌린 것도 있다. 모의 색은 옥색, 하늘색, 보라색, 흰색이며 대륜의 색은 청색이 대부분이다.

모는 재료(옷감이나 가죽)를 여러쪽 이어 돛형을 만들었으며 모정에는 무슨 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석 장식이 있다. U. Yadamsuren의 album에 왕관형(도 7)과 변형된 왕관형이 있는데 왕관형의 모에 홍색 끈(朱纒)을 느린 것, 모가 평편한 형, 뾰족한 형, 삼각형도 있고, 일자형 대륜이 넓어진 것, 좁아진 것, 양 옆이 중앙보다 높은 것 등 변형된 것이 많이 있다.

## 3) 금답자난모(金答子暖帽)와 후첨모(後檐帽)

「草木子」에 元代 관과 민이 모두 帽을 썼는데 챙이 원, 혹은 앞은 원 뒤는 사각형(方), 혹은 樓子라고하였다(周錫保,

1984: 367).

내몽고 적봉시 원보산 元代 모의 벽화의 묘주(도 8)가 쓴 모를 후첨모라고 하였는데(周錫保, 1984: 369) 징기스칸과 원세조의 금답자난모(도 9)와 같은 모이다.

西安曲池元墓 벽화 중 남자가 쓴 후첨모의 앞모습(도 10-1)은 모와 모정에 단 보석이 보이고, 뒷모습은(도 10-2) 方형(사각형) 침을 붙인 것이 보인다. 이것과 함께 후첨모의 뒷모습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있다. 즉 14C 초 「The Legacy of Genghis Khan」(2002: 80)에 후첨모 모정에 치미와 깃털을 꽂은 사람(도 11) 5인이 서있고 왕관모형과 발립에 치미 깃털을 꽂은 경우도 있다

〈도 11〉은 주황색 모와 주황색 사각형 침으로 이루어진 후첨모에 치미와 깃털을 꽂은 치미깃털모로 모의 앞테두리와 사각형침 양옆에 흑선이 있다.

원세조가 쓴 모자를 周錫保(1984: 359)와 黃能馥, 陳娟娟(1999: 300, 302)은 금답자난모라고 하였는데 그 형태는 후첨모의 형태와 같다. 즉 둥근 모의 앞쪽에는 백색 혹은 흑색 테를 둘렀고, 뒤쪽에는 사각형 침(드림)을 느린 형태인데 앞쪽 테두리와 뒷쪽 사각형 침(드림) 양 옆에는 흰색(징기스칸) 혹은 흑색(원세조) 선을 대었다. 안감색은 징기스칸은 흑색, 원세조는 홍색이다. 모정은 보이지 않으나 보석이 달렸을 것으로 본다.

후첨모를 쓴사람은 4인인데, 홀레구칸의 대연회 중의 한 신하가 후첨모를 쓴 뒷모습(도 12)이 보이는데 주황색 둥근 모의 앞쪽에는 흰색 테두리가 둘러져있고, 뒤쪽에는 흑색 사



각형 침(檐, 드림)이 늘어져 있다. 최성기의 징기스칸과 가족 중 맨 밑 줄의 청색 반비를 입은 2인이 후첨모(도 13)를 썼다. 왼쪽 한사람은 보라색 모의 앞쪽에는 홍색 테두리를 들렀고 뒤쪽에는 사각형 침을 느렸는데 선은 흑색이며 안감은 홍색이다. 모정에는 보석이 달려있다. 右측 사람은 모정에 보석 박힌 홍색모의 앞쪽에는 흑색털이 달려있고, 뒤쪽에 홍색 사각형 침이 늘어져 있으며 선은 흑색이다.

4) 치미(雉尾) 깃털모

치미깃털모는 칸과 많은 신하들 총 52인이 썼다. 3개의 치미를 꽂은 깃털모를 40명이 착용하였고 치미 1개를 꽂은 깃털모는 12명이 착용하였다. 치미 1개 혹은 3개와 많은 깃털을 머리의 2~3배 정도 크기로 뭉쳐 만든 치미깃털을 후첨모, 발립, 왕관형관의 모정에 꽂은 것으로 본다.

최성기(最盛期)의 징기스칸과 가족 중 징기스칸의 치미깃털모(도 14)는 홍색 금답자난모의 황색 모정에 치미와 깃털을 꽂은 것이다. 금답자는 홍색 등근모와 모 뒷쪽에 홍색 사각형 침이 붙여진 것으로 모의 앞쪽 테두리와 사각형 침 가장자리에 흰색 털이 둘러져 있다. 홍색모의 모정에는 황색 보석이 있고 치미 3개를 중심에는 곧게, 좌우로는 비스듬히 꽂고 그 뒤쪽으로 깃털이 큰 덩어리형으로 아름답게 퍼져 있어 왕의 권위를 더해준다.

신하 4인의 치미깃털모(도 15)는 모두 비슷한데 주황색 모의 모정에 주황색 보석이 박혀있고 치미 3개와 깃털덩어리

가 넓게 펼쳐진 것으로 등근 모의 앞쪽 테두리와 모 뒤쪽으로 늘어진 사각형침의 옆선은 흑색이다.

징기스칸이 본거지로 돌아왔을 때의 장면 중 한 신하의 치미깃털모(도 16)는 치미가 3개이고, 깃털의 뽀얀 모양이 <도 14, 15> 보다 작은 머리보다 조금 큰 크기이다. 3개의 치미가 모정이 아니고 챙 앞쪽에 꽂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면에서 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면에서 그린 치미깃털모를 21인이 쓰고 있었는데 이중 11인은 치미 1개를 꽂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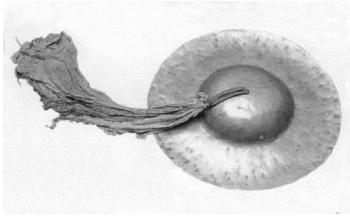
<도 17>은 홀라구칸의 금답자난모의 모정에 치미와 깃털을 꽂은 치미깃털모로 치미가 1개이고 양 옆으로 깃털이 퍼져 타원형이다. 몽케칸의 치미깃털모와 함께 앞에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치미란 용어는 周錫保(1984: 362)가 징기스칸의 치미깃털모(도 14)를 치미라고 하여 본인도 따랐고, 깃털모는 본인이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5) 조우관(鳥羽冠)

통일 도중 본거지(오르도스)로 돌아온 징기스칸 중에 3인이 조우관(도 18)을 착용하고 있다. 조우가 한국의 方笠(도 19)과 같은笠에 꽂혀있으므로 조우관으로 분류하였다.

방립형 모정에 조우가 1개(도 18) 꽂힌 조우관은 1인이 착용하고 있고, 조우 3개가 꽂힌 조우관은 2인이 착용하고 있다.



〈도 21〉  
바라(몽골유목문화, p.88)



〈도 22〉  
발립(몽골제국, p.23)



〈도 23〉  
옆트인 발립(역사독본  
world, p.22)



〈도 24〉  
옆트인 발립(심종문, 중국고  
대복식연구, p.391)



〈도 25〉  
모정이 평편한 쏘  
(몽골제국, p.28)



〈도 26〉  
소모형(8합1통모)  
(몽골제국, p.23)



〈도 27〉  
명대소모(6합1통모)(심종문  
중국고대복식연구, p.408)



〈도 28〉  
오고타이칸 8합2통모  
(대세계사2, p.339)



〈도 29〉  
6합1통모(20C)  
(U. Yadamsuren)

#### 6) 발립(斂笠)

元の 황제 및 관리들의 관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이 있었으며 몽골인들은 여름에는 입(笠)을, 겨울에는 모(帽)를 주로 사용하였다. 발립(도 20)은 여름에 사용하는笠의 일종으로 모 부분이 둥글며 모정에는 보석을 장식하며 그 형태가 타악기 요발(饒鉢: 불교) 자바라 종류의 악기, 작은 징, 〈도 21〉과 비슷해서 발립이라 부른다. 발립에 관한 기록은 「元史·輿服志」에 천자의 여름 복식 15등급 중에 보정금봉 발립과 주연변발립에 관한 기록이 있고 周錫保(1984: 359)는 성종(成宗)상(도 20)을 7보중정관(七寶重訂冠) 즉 발립이라고 하였다. 발립(도 22)은 징기스칸 즉위식, 홀라구칸의 대연회, 오르도스로 돌아온 징기스칸 등에서 10인이 착용하고 있다.

〈도 23〉은 모는 발립의 모와 같으나 챙의 옆이 벌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도 24〉와 같이 챙의 양옆이 벌어진 모양으로 생각된다. 발립의 변형으로 생각한다.

#### 7) 모정이 평편한 립(笠)

툴루이와 왕비의 장면 중 맨 밑줄에 서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흰색 관모(도 25)의 형태가 특이하다. 모부분이 넓고 모정은 평편하며 챙은 넓고 큰데 챙의 모양이 발립(도 22)과 유사하여 모정이 평편한笠이라 하였다.

#### 8) 소모(小帽)형

소모형에는 8합1통모와 8합2통모와 1합1통모 3가지가 있다. 명칭은 청시대에 관리들의 대모(大帽)와 구별하여 소모(小帽)라 칭했다(高春明, 2001: 271)고 하여 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삽화의 소모형은 8편으로 이었으나 명 청의 소모는 6편을 이은 것이 다르다. 소모형은 모부분을 8편으로 이어 밑부분 둘레(머리둘레)를 이음 없이 한통으로 만든 8합1통모이며, 머리에 꼭 맞으며 〈도 26〉모정에 장식이 있다.

〈도 26〉은 징기스칸에게 예를 드리는 장면에서 서있는 사람이 청색 모부분 8편에 금색 장식을 한 8합1통모를 썼고 모정에 장식이 있다. 야사(규칙)를 수여하는 오고타이칸 뒤에 서있는 한사람은 홍색 8합1통모를 쓰고 있고 또 한사람은 청색 1합1통모라고 본다. 모부분이 하나로 재단된 것 같으며 밑부분둘레는 한통으로 되어 있어 1합1통모라고 본다.

沈從文(1981: 406)은 명대(明代) 일반인이 쓴 건모(巾帽)는 종류가 많았고 당(唐), 송(宋), 원(元) 이래로의 양식이 그대로 유행했는데 정부에서 규정한 2가지가 사방평정건(四方平定巾)과 육합일통모(六合一統帽)이며 전국에서 통용되었다. 육합일통모(六合一統帽, 도 27)는 육편(六片)의 재료를 합쳐 만든 모(帽)인데, 사방(四方)을 평정하고 육(六)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으로 정치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새 봉건왕조가 길조로 삼았다.

량영(朗英)의 「칠수류고(七修類稿)」에 의하면, 양유정(楊維禎)이 주원장(朱元璋)에게 아첨한데서 유래되었다.

육합일통모를 과피모(瓜皮帽)라고도 하는데, 청대(清代) 일반시민이 쓰던 소모자(小帽子)의 전신이었다. 다른 점은 명대(明代)는 라백(羅帛)을 쓴 반면, 청대에서는 사(紗), 단자(緞子), 왜용(倭絨), 우능(羽綾)으로 만들었고, 상층 사회에서도 썼다.



〈도 30〉  
1합1통모(20C)  
(U. Yadamsuren)



〈도 32〉  
털모자(몽골제국, p.14)



〈도 31〉  
터번(대세계사2, p.339)



〈도 33〉  
표범털모자(몽골제국, p.134)

〈도 28〉은 흰색 모부분을 8편으로 이었고 밑부분 둘레를 청색으로 한 개가 아니고 앞에 트임을 주어 2개로 만들어 입체감을 준 8합2통모인데, 모정에 장식이 있다. 징기스칸 앞에 바지를 입고 서있는 사람과 차카타이칸 앞에서 대신을 처형하는 사람(도 28)이 쓰고 있다.

소모형은 20C에도 착용됐음을 U. Yadamsuren album에 있는 6합1통모(도 29)와 1합1통모(도 30)로 확인할 수 있는데 8합이 아니고 6합인 점이 다르다.

#### 9) 터번

터번은 이 당시 페르시아인의 쓰게인데 몽고인들은 거의 쓰지 않는 쓰게이다. 오고타이칸과 두 아들 중 서있는 한 사람이 흰색터번(도 31)을 쓴 것은 페르시아 영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일한국의 제7대 가잔칸(재위 1295-1304)도 페르시아인과의 유화정책의 표징으로 터번을 쓰고 페르시아인을 다스려서 일한국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 10) 털모자

털모자는 짐승의 털로 만든 것 같으며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막영에서 세사람이 홍색 털모자(도 32, 33)를 쓰고 있는데 모정이 높다. 킵차크칸국의 초대 칸인 바투칸(징기스칸의 손자)과 신하들 중 5인이 〈도 32〉와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흑색 사진이므로 색깔은 알 수 없다. 차카타이칸 앞에서 대신을 처형하는 장면 중 서있는 사람과 텐트생활을 하는 몽고인 중 한사람이 똑같은 흰색 털모자(도 33)를 썼는데, 검은 점이 있는 것이 표범털모자 같아 보이는데 모정이 얇으며 머리에 꼭맞는 작은 털모자이다.

### III. 결 언

1. 14C 집사에 나타난 남자 관모의 종류는 권운관, 왕관형관, 후첨모(後檐帽), 깃털모, 조우관, 발립, 모정이 평편한笠, 소모형, 터번, 털모자가 있었다.

2. 여름용 관, 겨울용 모, 모정장식은 몽골인이 사용하였고 청까지 이어진다.

3. 징기스칸의 아버지는 물론 징기스칸시대 (1206년 즉위)와 그 이후 100여년이 흐른 가잔칸(1304)까지의 관모는 같다. 이것은 전통성을 고수했다는 증거이다.

4. 14C 「집사」의 관모 중 권운관, 왕관형관, 소모형은 20세기 몽골인이 사용한 관모를 그린 U. Yadamsuren album에 있다.

5. 권운관은 청색이며 왕과 왕자만 사용하였고 모정에 보석장식이 있다.

6. 왕관형모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양모(涼帽)로 변형되었다.

7. 후첨모는 칸의 금답자난모와 신하들의 후첨모로 구분되어 불린다. 깃털을 꽂아 크고 화려한 관이 되었다.

8. 깃털모에는 치미깃털모와 조우관 2종으로 구분된다. 치미를 1개나 3개와 타원형 깃털 문치를 함께 후첨모나 발립이나 왕관형관에 꽂았다.

9. 조우관은 조우 1개 혹은 3개를 한국의 方笠과 유사한 입의 모정에 꽂은 것이다.

10. 발립은 징모양의 갓을 말하는데 불교의 자바라 종류의 악기인 요발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11. 소모형은 머리에 꼭맞게 만들기 위하여 8쪽으로 이었고, 밑부분을 한통으로 연결한 모자이다.

12. 터번은 당시 페르시아인의 쓰게로 몽골인이 쓴 것은 페르시아인과의 유화정책의 표징이다.

13. 털모자는 짐승의 털로 만든 것으로 추운 곳에서 더 많이 썼다.

#### ■ 참고문헌

-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몽골제국(1970). 세계역사시리즈12. 세계문화사(동경).  
 세계문화사III(1964), 유럽중세의 아시아의 발전. 학원사.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歷史讀本World(1991). 특집-징기스칸과 몽골제국. 新人物往來社 (동경), 3월호.  
 元史 卷78(1977). 中華書房.  
 원색도설대세계사1(1982). 아시아국가의 전개. 태극출판사.  
 유희경, 김문자(2001).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週刊朝日百科(1989). 世界の歴史 51권, 53권, 朝日신문사(동경).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刷出版社(북경).  
초원의 대서사시 몽골유목문화(1999). 경기도박물관.  
黃能馥, 陳娟娟(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旅遊出版社(중국).  
Komaroff, Linda, & Carboni, Stefano.(Eds) (2002).  
*The Legacy of Genghis Kha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Yadamsuren, U. (1967). *National Costume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Ulan-Bator State Publishing  
House.

---

(2005년 11월 15일 접수, 2005년 12월 23일 채택)